



순천읍성의 위치와 형태를 1915년에 조제된 지적원도를 통해 확인했다. 지적원도는 현재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다. 지적원도는 1915년 7월 16일 측량에 착수해 같은 해 8월 31일 1/1200 축척으로 완성됐다. 동문의 경우 이 기간에 지적이 변경됐으며, 따라서 1915년 가을부터 1916년 봄 사이에 동문이 헐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동문부터 남문에 이르는 구간은 남문을 제외하고 성벽이 이미 철거된 것을 지적원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좌우 사진은 현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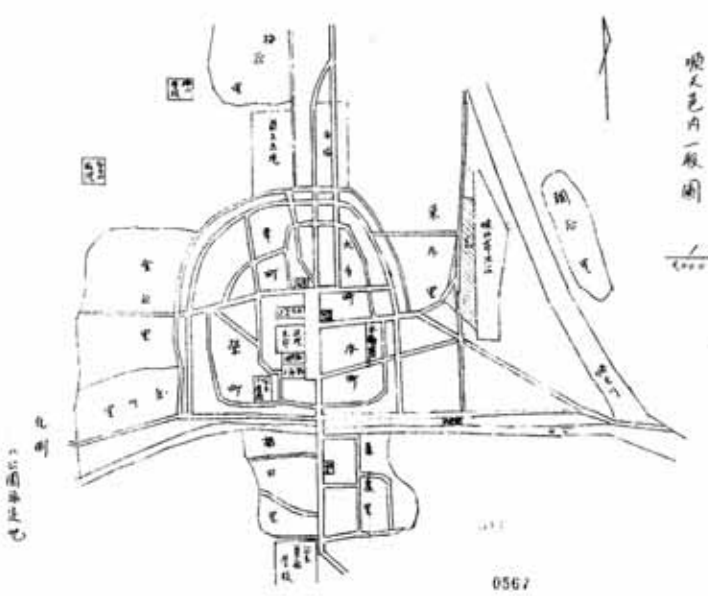
1909년 의병 제압위해 읍성 철거하며 첫 도로 개설

국가기록원과 함께하는 남도근대화탐사 <32>



<전남편>

12. 전남 동부의 수도 순천, 도시화의 시작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순천읍 일반도. 1930년 순천은 예로부터 내려오던 환선정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 도면을 남겼다. 읍성의 구도가 명확히 그려져있으며, 읍성 아래 옥천, 동쪽에 동천이 자리하고 있다.



1910년대 아직 근대 도시화가 되기 전 순천읍성 내 풍경.

순천은 고려 충신왕 처음으로 순천부라는 지명을 쓴 이래 조선 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700년 넘게 그 이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삼국시대부터 역사에 등장하는 순천은 감평, 승평, 승주 등의 지명을 썼고, 조선 태종 13년(1413)에는 순천도호부가 설치되기도 했다.

1895년 지방제도 개편으로 기존의 전국 8도가 23부로 재편성될 때 이 지역은 남원부 순천군이 되었고, 그 이듬해인 1896년 다시 13도로 바뀌면서 전라남도 순천군이 됐다. 같은 해 돌산군이 신설돼 도서지역이 그 소속이 되고, 그 다음 해인 1897년 순천군의 읍촌·소라·삼일·여수면이 떨어져 나가 여수군이 신설됐다. 이로 인해 면적이 크게 축소됐지만, 1908년 낙안군이 폐지되고 소속된 7개면이 순천군에 편입되면서 다시 증가하는 등 구역의 변화가 심했다.

순천 내부적으로는 1914년 조선총독부의 전격적인 행정구역 개편, 즉 '면 폐지와 통합' 조치로 당시 21개면이 14개 면으로 조정됐다. 소안면과 장평면이 순천면으로, 하사면과 도리면은 도사면으로, 용두면과 해촌면은 해룡면으로, 동상면·동하면·초상면·초하면은 동초면으로, 읍내면과 내서면은 낙안면으로 폐지 및 통합됐다. 이외 서면, 황천면, 월등면, 쌍암면, 주암면, 송광면, 상사면, 외서면, 별랑면은 그대로 유지됐다.

1929년 4월 1일 전라남도령 제22호로 순천군과 보성군에 속한 면 가운데 동초면이 폐지되고, 소속된 리는 별랑면, 낙안면, 보성군 법교면으로 각각 편입되기도 했다. 이후 총독부령 제132호로 1931년 읍제가 실시되면서, 그 해 11월 1일 광주, 제주와 함께 순천면이 순천읍으로 승격됐다.

이러한 행정구역의 개편과 함께 순천의 도시성장은 인구변화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해방 이전의 통계자료를 보면, 주시가지 호구에서 1910년 순천면의 인구는 4753명이었는데, 1925년에도 9012명으로 인구가 1만명을 넘지 않았다. 다만 일본인의 수가 한일강제병합 당시 199명에서 78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1931년 순천읍으로 승격된 후 인구는 대폭 늘어나고 있다. '읍별 호구 및 인구' 자료를 보면 1933년 1만8705명이고, 1935년에는 2만137명으로, 통계자료가 존재하는 1943년에는 3만4805명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다. 전체 인구 중 일본인의 비율도 1936년 1501명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전체 순천 인구의 10%대를 유지했다. 1930년대 인구 평균증가율이 6%에 달한다는 점은 이 시기 순천에 대대적인 도시적 변화가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순천 시가지가 넓어지는 것은 조선시대부터 관공서를 중심으로 형성된 순천읍성이 철거되기 시작하는 시기와 일치하고 있다. 이는 광주와 유사하다. 순천대 우순환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읍성 철거가 1909년 이병휘 군수 부임 이후 지금의 국도국장 앞을

- 20년에 걸쳐 동·북·서·남문 順 진행
- 인접지 옥천·금곡동 등 시가지 개발
- 1930년 역 개소·송정간 철도 개통
- 1910년 인구 4753명 30년새 7배 ↑

지나는 광주 방면 도로를 개설하면서 시작됐으며, 이후 20여년에 걸쳐서 동문, 북문, 서문, 남문의 순서로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 읍성은 지금의 남내동(3만5083㎡, 22.45%), 중앙동(3만5059㎡, 22.44%), 영동(2만7490㎡, 17.60%), 행동(5만8611㎡, 37.51%) 등에 걸쳐있었다. 이 읍성 내부와 인접한 옥천동, 금곡동, 장천면 등이 시가지로 개발됐는데, 특히 순천에 진출한 일본인들은 읍성 내부 토지에 눈독을 들였다.

한일강제병합 이후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한 1915년 읍성 내 토지는 국유지가 390필지, 한국인 소유가 122필지였고, 일본인 소유는 43필지에 불과했으나, 1930년 국유지는 68필지로 줄어들고 한국인과 일본인이 소유한 토지는 각각 284필지, 202필지로 늘어났다. 또 1942년에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토지가 248필지와 233필지로 거의 비슷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읍성 내부에 관아와 객사 등 조선시대부터 유지돼오던 행정기관이 거의 사라지면서 이 토지에 대한 매각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의 토지 선점 경쟁이 치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읍성 내에는 조선시대 정처·행장·군사 관련 관공서가 있었다. 하지만 이들 시설들은 읍성이 사라지면서 학교, 관공서 등으로 변모하거나 매각되는 운명을 맞이했다. 왕권을 상징하는 객사는 1837년 중수됐으나 읍성 중심부 남북을 가로막고 있었고, 그 쓰임이 다한 1908년 사립 승평학교 교사로 쓰이기도 했다. 1909년 광주~여수 간 도로가 개설되면서 동헌 부분이 철거되고 1925년 매각돼 사유지가 됐으며, 지금의 중앙로가 개설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부사청 역시 1911년 철거된 뒤 지금의 성동초등학교 전신인 심상소학교(일본인 교육시설)가, 교방청은 1909년 순천공립보통학교 부지가 됐다. 그러나 이 읍성은 한꺼번에 모두 철거되지는 않았다.

1923년 8월 동아일보는 순천군의 시구개정 문제를 다루면서 순천 남성문 연자부를 기점으로 옥천리 영정문 곡루까지 성벽을 철거하고, 약 180간(327m), 폭 3간(5.4m)의 3등도로를 설치공사

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이 시기까지도 읍성의 일부 구간이 잔존해 있었다는 것을 말하며, 순천읍성의 경우 일정한 시기가 전체가 철거된 것이 아니라 도로 개설 등 필요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

순천군에 근대식, 즉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놓이기 시작한 것은 1911년부터다. 그해 순천~전주 간 도로공사가 시작된 것이다. 이 노선은 모두 32km로 예산 35만1254원이 투입됐으며, 2년 후인 1913년에 준공했다. 순천~여수 간 8km 도로 역시 1913년 공사가 시작돼 공사비 3만5913원으로 같은 해 완공됐다.

1937년 조선총독부에서 출판한 '조선토목사업지'를 보면, 일제 초기 도로사업에 대한 언급에서 1908년부터 예산 100만원으로 3개년(이후 5개년으로 수정)에 걸쳐 주요 7개 노선의 공사를 실시했는데, 이외에도 "지방의 교통을 개발하고, 폭도귀순자에 생업을 부여하기 위해 전라남도 해남에서 장흥·순천 및 광양을 거쳐 경상남도 하동에 이르는 연장 16만4072m의 소위 '폭도도로'를 개설했다"고 적고 있다. 전라도는 일제에 의해 을사늑약이 체결된 이후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의병활동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이 시기 전라도의 의병을 제압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으로 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추정된다.

1920년대 중반 이전에 순천에서 발생한 변화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문서 중 일제 초기 순천에 관한 자료는 부·군·면 폐합과 같은 행정구역의 개편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당시 의병활동에 관한 일본 측에서 작성한 보고서로, 상하수도, 도로와 같은 도시기반시설 구축에 관련된 자료는 거의 없다. 또 이전에 진행된 연구자료를 살펴봐도 1930년 10월 순천역이 영업을 개시하고 그해 12월에 순천~광주 송정 간 철도가 개통되기 전까진 별다른 내용이 없는 실정이다. 다만 1929년에 출판된 순천군의 '군세일반'에서는 순천군 내 도로는 2등 도로(군과 군의 연결) 27리25정(10.7km), 3등 도로(군내 연결) 12리32정(4.83km), 등외도로(면내 연결) 6리 12정(2.4km)이 설치됐다고 기록돼 있다. 또 주요 관공서 및 기타 기관으로 군청,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순천도립의원, 경찰서 및 주재소가 12곳, 학교 13곳, 미곡검사소 등이 있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윤희철 국가기록원 직원

- ▲도움말 주신 분
노경수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이봉수 동강대 건축과 교수
- ▲이 기사는 국가기록원·광주시·전라남도의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

연말 송년모임 예약 받습니다.

●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 15,000원 ● 아리랑 하우스 한정식 : 25,000원~

2012년을 보내는 뜻깊은 자리를
금수장 호텔 아리랑 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우리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과주흥**
맛집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과주흥**
맛집

착한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

www.geumsoojang.com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